



이가 시비옹테크(폴란드)가 9일(한국시간) 메이저대회인 프랑스여자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자스민 파올리니(이탈리아)를 꺾고 우승을 확정지은 뒤 코트에 주저앉아 포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프랑스오픈은 내 천하” 시비옹테크 3연패 포효

‘이제는 시비옹테크 시대다.’

세계 1위 이가 시비옹테크(폴란드)가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5350만 유로·약 794억 원) 여자 단식 3연패를 달성했다. 2020년 이 대회에서 생애 첫 메이저 타이틀을 획득한 시비옹테크는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도 프랑스오픈 왕좌를 지켰다. 최근 5년 동안 네 차례 우승한 셈이다.

시비옹테크는 9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한수 아래로 평가되는 자스민 파올리니(15위·이탈리아)를 2-0(6-2, 6-1)으로 가볍게 제압했다.

프랑스오픈 여자 단식 3년 연속 우승은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1992년 모니카 셀레스(당시 유고슬라비아), 2007년 쥐스틴 에닝(벨기에)에 이어 시비옹테크가 통산 세 번째다.

메이저 대회 전제로 봐도 단일 대회 여자 단식 3연패는 2014년 US오픈 세리나 윌리엄스(미국) 이후 시비옹테크가 약 10년 만에 이뤘다.

7월 말 개막하는 올해 파리올림픽에서도 시비옹테크는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다. 하드코트에서 열린 2021년 도쿄올

상금 794억 원 획득  
개인 통산 다섯 번째  
메이저 타이틀 기염  
7월 파리올림픽서도  
유력 금 후보 기대감

림픽에서는 2회전에서 탈락했지만 이번 프랑스오픈 경기장에서 열리는 파리올림픽에서는 시비옹테크를 당해낼 선수가 마땅치 않다. 시비옹테크의 부친 토마시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 폴란드 조정 국가대표로 출전해 7위로 메달을 따내지는 못했다.

2022년 US오픈도 제패한 시비옹테크는 개인 통산 5번째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랐으며 이번 대회 우승 상금으로 240만 유로(약 35억8000만 원)를 받았다. 1990년 이후 태어난 선수 가운데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5회 이상 우승한 현역 선수는 남녀를 통틀어 2001년생 시비옹테크가 유일하다. 또 시비옹테크는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 5번 진출해 5번 모두 이겼으며 이

는 마저릿 코트(호주), 셀레스에 이어 세 번째다.

1세트에서 먼저 파올리니에게 자신의 서브 게임을 내줘 1-2로 끌려간 시비옹테크는 이후 5게임을 내리 따내며 가볍게 1세트를 선취했고, 2세트에서도 5-0까지 달아나 승기를 굳히는 등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다.

1세트 초반에 브레이크를 허용한 것이 시비옹테크에게 오히려 각성 효과를 가져다준 셈이 됐다.

프랑스오픈 단식에서 2022년부터 21연승, 최근 경기에서는 4월 마드리드오픈부터 19연승을 이어나간 시비옹테크는 파올리니와 상대 전적도 3전 전승으로 격차를 벌렸다.

시비옹테크는 이날 공격 성공 횟수에서 18-7로 파올리니를 압도했고, 서브 최고 시속 193km-184km, 첫 서브 득점 확률 69%-39% 등 한수 위의 기량을 과시하며 1시간 8분 만에 우승을 확정했다.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결승에 진출한 파올리니는 졌지만 다음주 세계 랭킹에서 개인 최고인 7위까지 오르는 것에 만족하게 됐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 박민지 KLPGA 투어 사상 첫 4연패 금자탑

프로 8년 차 박민지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최초의 단일 대회 4연패를 이뤘다.

박민지는 8일 강원도 양양군 설해원CC의 더레전드코스(파72-6652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총상금 12억 원) 최종 3라운드에서 2언더 70타를 쳐 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 전예성 등 공동 2위 그룹을 3타 차로 제치며 전연미답의 4년 연속 우승을 일궈냈다.

2017년 프로에 데뷔한 박민지는 올해 KLPGA 투어 첫 승과 함께 통산 승수를 19승으로 늘렸다.

KLPGA 투어 단일 대회 3회 연속 제패는 고 구옥희 전 KLPGA 회장파 박세리, 강수연, 김해림에 이어 박민지가 역대 5번째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박민지가 대신배들을 제치고 2021년부터 4회 연속 우승이라는 최초의 기록을 쌓았다. 이번 시즌엔 아직 우승이 없던 박민지는 지난달 E1 채리티오픈 공동 3위, 지난 주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6위로 최근 2개 대회 연속 톱10에 들며 상승세를 보여왔다.

1라운드에서 8언더파 64타를 몰아쳐 단독 선두로 나선 박민지는 2라운드에서도 69타를 쳐 2타 차의 선두로 나서 우승이

어느 정도 감지됐다. 하지만 이 제염, 전예성이 맹추격을 벌여 한 타 차로 바짝 뒤쫓았음에도 박민지는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4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 달성에 대한 부담 탓인지 보기 1개와 버디 1개로 답답한 플레이를 펼치던 박민지는 14번홀(파5-558야드)에서 6.6m 거리의 오르막 퍼팅을 떨구 기세를 올렸다. 이렇다할 리액션을 보이지 않는 박민지가 주먹을 불끈 쥐며 세리머니를 펼쳤다. 공동 2위에 2타 앞서 우승에 대한 확신이었다. 이후 박민지는 이렇다할 위기없이 18홀을 마쳤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박민지가 9일 강원 양양군 설해원에서 열린 2024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최종 3라운드 1번 홀에서 세컨드샷하고 있다. KLPGT

## 김하성 이틀 연속 홈런 애리조나전 시즌 9호포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올 시즌 처음으로 이틀 연속 홈런포를 작렬했다. 김하성은 9일(한국시간·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 경기에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첫 타석에서 시즌 9호 홈런을 쳤다.

샌디에이고가 1-0으로 앞선 2회 말 무사 1, 3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애리조나 오튼슨 선발 라인 벨슨의 시속 152km 직구를 받아쳐 좌중간 담을 넘어 가는 3점포를 터뜨렸다. 타구는 시속 167

km로 118.6m를 날아갔다.

김하성은 전날 애리조나전에서 9일 만에 홈런을 추가했는데, 이틀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3시즌 연속 두자릿수 홈런에 1개만을 남겨뒀다. 김하성이 이틀 연속 홈런을 친 건 올 시즌 처음이다. 지난해 6월 23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과 24일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 연속 홈런을 친 뒤로는 약 1년 만이다.

김하성은 3회 2사 2, 3루에서는 볼 카운트 2스트라이크에서 볼 4개를 연속해서 골라 이날 두 번째 출루에 성공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BEYOND GOLF**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딜)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